

# 김영진·강훈식 전진배치... 민주당 ‘이재명표 쇠신안’ 탄력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대위·당 신속 의사결정, 기동성 강화 기대” 16개 본부체계, 6~7개 간소화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쇠신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낙점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번 인선은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함께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의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선당후사의 자세로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앞줄 가운데)가 25일 서울 동작구 북향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여성군인들과 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브리핑에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협의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뜻에 따라 선대위를 유능하고 기동력 있게 쇠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와 선대위, 당의 유기적 연관과 의사결정의 단순 신속화, 기

동성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는 사무총장이 당의 예산 집행 및 조직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맡은 중요보직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 핵심 인사인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면서 향후 대선 국면 가운데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셈이다. 이와 관련 고 수

석대변인은 “당과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무총장과 선대위 총무본부장, 전략기획위원장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당 사무총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관례가 있다. 재선 의원인 김영진 사무총장이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 부대표를 역임한 당내 기획통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해도 파격적인 인선인 셈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인선으로 선대위 총무본부장도 겸임하게 된다.

강훈식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당 선대위 출범 이후 이 후보의 참모 역할인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왔다. 이해찬 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도 역임한 만큼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번 인선으로 선대위 전략본부장도 겸임한다.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인선이 발표된 뒤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과 선대위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현행 16개 선대위 본부 체계를 6~7개로 간소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1·2·3캠페인을 통해 현장 중심 체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사무총장은 해당 캠페인과 관련 “모든 의원은 지역과 직능에 자기 역할을 책임지고 국민 현장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담는 것”이라며 “여의도 중심이 아닌 국민, 현장, 민생 중심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전략기획위원장은 조직 변화와 관련 “가능한 모든 본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모든 정보를 취합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시스템이라 기민하게 움직일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더 지체해선 곤란” 김종인 뺀尹선대위 출발

선대위원장 직 ‘공석’ 6명 인사발표 정책총괄-원희룡, 조직총괄 주호영 “선대위원장, 삼고초려해서 모실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24일) 가진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인사인 셈이다.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6명의 본부장급 인사만 발표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한 선대위 인사는 총괄본부장, 대변인 및 공보지원단,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먼저 총괄본부장은 분야별로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의원 ▲기능총괄본부장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이준석 대표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 등 6명이 맡았다.

대변인단에는 원내에서 전주혜·김은혜 의원, 원내 인사로 김병민 전 비상대

책위원과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각각 맡았다. 공보단장은 조수진 의원, 공보실장은 박정하 원주시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윤 후보가 위원장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선대위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선거운동을 더 지체해선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 뛰어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공정·미래가치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인선 관련 공방을 지속한 데 따른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일리 있는 비판”이라며 “오늘부터 더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과 선대위 인선 관련 공방이 있었던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애들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윤 후보는 공석인 총괄선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

를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지 않은 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오신 분, 공정과 상식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실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다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선대위 추가 인선과 김 전 위원장 거취는 별도로 이해하면 된다. 정치의 영역은 변화무쌍하기가 2~3일 추이를 좀 봐주길 바란다”며 김 전 위원장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과 별개로 선대위 추가 인선이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전날(24일) 만찬 회동 가운데 ‘자신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며 “오늘로서 끝을 내면 잘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위원장은 “나는 (윤 후보를) 밖에서 돕겠다는 얘기한 적도 없다”는 말을 전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 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신(新)한일관계 냉전을 경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1

## “新 한일관계, 미래 지향적 구축해야”

주요 대선후보 ‘코리아 포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신(新)한일관계가 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 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포럼에서 ‘국민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 원칙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점점 멀어져가는 이 길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권 문제는 엄정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교류 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 정부 들어와

서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불신과 냉소로 막혀있는 한일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 갈 것”이라며 최근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에 대해 재차 말한 뒤 “한일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어 언제라도 무슨 이야기든 서로 마음 열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 간 화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심 후보는 “일본이 위안부 사과 문제, 역사 왜곡, 보복성 무역 제재,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문제로 장기간 경색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일본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윤 후보와 비슷한 취지로 ‘역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면 한일관계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 안 후보는 전직 이스라엘 대사와 만난 가운데 나왔던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적인 비극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고 미래 발전을 위해 서로 꼭 필요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독일’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 “정부, 인권위 독립활동 철저히 보장”

文 대통령,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코스트홀

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에 대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



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가 처음 접수한 진정이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